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및 남북공동번영을 위한 결의안

| | |
|----------|-------|
| 의안 번호 | 12472 |
|----------|-------|

발의연월일 : 2018. 3. 14.

발 의 자 : 김두관 · 심기준 · 문희상
최운열 · 강훈식 · 오영훈
신창현 · 김상희 · 기동민
박경미 · 김한정 · 박 정
김해영 · 박광온 · 서영교
김영호 · 김현권 · 임종성
김철민 · 김병욱 · 안호영
박재호 · 김정우 · 이수혁
김종민 · 이용호 · 천정배
신동근 · 유동수 · 이춘석
노웅래 · 유은혜 · 고용진
소병훈 · 전해철 · 어기구
이 훈 · 손혜원 · 유성엽
조정식 · 백재현 · 강병원
의원(42인)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2018년 3월 5일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특별사절단
방북 결과 남북정상회담개최 합의와 2018년 3월 8일 북한의 북미정상
회담 초청을 수락한 미국 정부의 결단을 환영하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

하여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반드시 성공해야 함을 확인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 국회를 비롯한 대한민국 전체의 단합된 노력과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의 노력, 주변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치적 공방과 갈등을 자제하며, 국회 차원의 협력과 외교적 노력을 다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 교류와 협력을 통한 남북한의 공동번영을 지향하며,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회담이 될 수 있도록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포함한 일체의 긴장 유발 행위를 중단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양국이 한미동맹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 통일과 동북아시아 평화 및 안정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해왔음을 높이 평가하며,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미국 정부 및 미국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미국과 함께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자 회담 당사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주변 국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며, 이들 국가들이 한반도 비핵화와 남

북교류협력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한다.

제안이유

2018년 3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4월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에 합의하였음. 이어 대북특별사절단은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안 의사를 전달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이전에 만날 것을 수락하였음.

단절된 남북관계를 딛고 1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와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한의 공동번영을 위한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임.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여야는 여전히 정치적 공방을 지속하고 있는 바, 역사적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 여야의 협력을 통해 대외적으로 한 목소리를 냄으로서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대외적인 신뢰를 확보하고,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할 국회 차원의 외교적 노력도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북한이 대북특사를 통해 밝힌 비핵화 의지 및 전략도발 중단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넘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성공적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며, 북미정상회담의 당사국인 미국, 특히 미국 의회의 협력이 아주 중요할 것임.

이에 국회 차원에서 여야 정쟁 중단과 외교적 노력, 북한과 미국의

적극적 노력, 6자회담 당사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희망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함.